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4월 아픈 꽃 잔치,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뭉땅 뭉땅해라" 와! 이 노래를 들으며 이미지를 보노라니 예전엔 지금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기억이 재생된다. 그와 동시에 청년실업 국가에서 N포세대의 자조적 유머 코드가 저릿하게 다가온다.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만...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붙여진 3포 세대가 5포 세대를 거쳐 이제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붙여진 N포 세대, 그들이 기성세대에게 혹은 연애하는 이들에게 '봄이 좋다?'고 물으면서 자조적 절망감을 노래한다. 그런데 걸리는 것은 '뭉땅 뭉땅해라'라는 허풍구 결말이다. 공존의 삶보다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조차 유머가 되는 동시대의 아픔은 세대 차이와 더불어 수저론 과 계급 차이의 상처를 드러내 준다.

아픈 청년 세대론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1000유로 세대'로, 경제난을 겪은 그리스에서는 이보다 300유로가 깎인 '700유로 세대'라는 유행어가 떠돌고 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도 유사한 현상으로 보인다. 알파고와 인간과 바둑을

두며 인공지능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증명하는 후기 정보화시대, 청년실업은 사회노동력 구조와 자본 재분배 혁신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깨우쳐 준다.

특히 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 20년간(1996~2015) 발표한 보고서가 보여주는 주요국가 재산 축적 과정은 한국의 병적인 수저론 신화의 근거를 드러낸다. 세계 최고 부자들 중에 한국이 상속 부자 비율 74.1% (2014년 기준)로 단연코 세계 1위라는 지표는 사회공동체로 공존의 인식조차 실종된 제도의 민낯을 보여 준 셈이다.

그런데 세계 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의 여지는 안 보이고,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고, 나도 젊어서 해 봤는데~"라며 "기회를 잡아라", "창업해라", "공부해라" 등등 잔소리로 청춘세대를 독려한다. 그런 외중에 웅단 같이 깔린 분홍 꽃잎 위에 떨어진 어린 왕자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뭉땅 뭉땅해라"라고 이 찬란한 꽃 잔치 봄에 내치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든다.

그 여파인지 화사하게 만발한 벚꽃을 올려다보며 아프다는 느낌이 온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다가 남산 기슭에 어우러진 진달래 무리를 불현듯 만나게 되었다.

하루살이 인생 산책을 보여 주신 김홍호 선생님(1919~2012)께서 4월이면 들려주시던 유영모 선생님(1890~1981)의 '진달래야' 한 구절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홀로 너만 진달래라/ 진달래 나는 진달래/ 너의 집은 내 집래"

진달래란 발음을 '집을 받아 지는'라는 뜻의 말놀이로 풀어 가는 대목이 저릿하게 다가온다. 특히 4·19에 앞서 강렬하게 다가오는 4·16 세월호 잔영과 더불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 내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들이 피어나고 있다. 4월 중순경 '업사이드 다운'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보스턴국제영화제 인디스팩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만난 짧은 다큐멘터리 '살아도 죽어 있는 사람들의 날'(Day of the living Dead)에선 노래 '거위의 꿈'이 깔리는 가운데 아이들 얼굴이 꽃잎처럼 하늘거리며 절망 속 희망을 노래한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 날을 함께해요"라고 노래하면서,

정춘 특·특



이희찬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년

내 젊음을 내세울 기회

한다. 친구가 전부이고 제일인 용비, 대학 대신 군대를 택한 상우, 엄마에게 시달리는 재수생 지공, 낙산산 대학 야구부 두만은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스무 살이 되고 나서의 첫 여행길에 우연히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다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순식간에 사건의 주범이 돼버린다.

'진실'보다는 '믿어야 할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와 경찰들의 다그침 속에서 이들의 스무 살 인생에 어둠이 내린다. '세상엔 친구보다 지킬 것이 더 많다'는 어른들의 말에 관객도 함께 답답함을 느낀다.

'영원한 몽상가'로 불리는 미셀 공드리 감독의 새 영화 마이크를 연 가솔린은 여의치 않은 환경을 헤쳐 나가는 두 소년의 유쾌한 성장기를 그렸다. 또래에 비해 몸집이 작아 '마이크롭'이라는 별명을 지닌 열여섯 살 다니엘과 가솔린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전학생 테오는 서로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단짝 친구가 된다.

이들은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가던 중 자신들이 만든 날랜차 차로 프랑스 전국

을 누비는 모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아이들은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괴짜 취급을 받지만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알고 바로잡으려는 굳은 의지가 있기에 이들을 응원해주는 이들도 적지 않다. 프랑스 일주는 실패로 끝나지만 이는 아이들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주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5·18레드페스타'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레드페스타의 주제는 '오리 사냥'이다. 주관 단체 '청년문화허브'는 "5·18로부터 36년이 지난 현재, 시민들이 군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운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청년을 짓누르는 '탐관오리'로 빗댄 권력을 직접 사냥하는 데 기획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오리는 민심을 뒤로하고 이합집산을 일삼는 정권권, 위장준비군이 마치 상풍처럼 전열되는 시정난, 학교의 획일적·권위적인 교육 풍토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자들이

가루 모치를 던져 오리를 사냥하는 게 축제의 주된 내용이.

자기 작품을 내기 힘든 현실에서 청소년·청년들이 이 축제에서만만큼 주먹을 움켜쥐려는 게 레드페스타가 의도하는 바다.

비루한 청년 현실 '헬조선'을 주먹으로 힘껏 내지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바로 내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 '이미 진 선거'라는 불멘소리로 투표를 한 뒤에 낼 수 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도 전체 선거인 4210만398명 가운데 513만1721명이 참여, 투표율 12.2%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는 점에 사전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4·13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부쩍 높아졌다. 이는 기쁜 소식이다. 선거일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진 소중한 표를 행사해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

社說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꼼꼼히 살펴 선택을

선택 4·13 D-1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이전의 전국구 제도가 위한 결정을 받은 뒤 17대 총선부터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옛 민주노동당이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이 2석뿐이었지만 이의 4배에 독립영화들이 피어나고 있다. 4월 중순경 '업사이드 다운'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보스턴국제영화제 인디스팩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과거엔 진보 정당이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돌풍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역구 후보 따로 정당 따로 투표하는 '교차 투표'가 야권 분열로 인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하는데 국민의당이 선거 막판 급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공식 선거전 시작 전만 해

도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면서 비례대표 5~6석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중반대로 급등했고, 지역구 후보와 별개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는 '교차 투표' 흐름이 뚜렷 거세지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애초 목표로 내건 비례대표 10석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드디어 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면 두 장의 투표지를 받게 된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원을 뽑는 투표용지이고,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용지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 투표를 의식하고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21개나 되는데 이 중에는 정책 생산 능력이 없는 이름뿐인 정당도 없지 않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후보 역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 보고 진지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능력 있는 인물의 진출과 정책의 조화를 통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선거 막판 난무하는 흑색 비방 경제해야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찬각을 다투며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야권 적통을 놓고 유례없는 사투를 벌이는 바람에 선거 분위기도 점차 혼탁해지고 있는 듯하다. 곳곳에서 상호 비방과 함께 고소·고발도 불사하는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측이 서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연일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해 경향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또 다른 곳에는 단체장이 특정 후보와의 공동보조를 명명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허위사실 공방이 있었다.

흑색 선전물은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한 후보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다"는 유인물이 수십 장 발견됐다. 경찰은 유인물 배포자와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 상태에서 치러지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득표에만 매달려다 보면 위법 소지를 알면서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또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과 투표일인 내일 새벽 사이가 불법이 저질러지기 쉬운 취약 시간대로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때표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데다 근거 없는 흑색비방에도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거름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경·검 등 단속 기관들은 끝까지 비상 체제를 가동해 흑색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절대 끼여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배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우리 군사가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십자(十字)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갈·송골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 그리고 앞은 용의 머리를 만들어 입은 대포 구멍으로 활용하였으며,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만들어 꼬리 밑에 총구멍을 설치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 25년(1592년) 5월 1일자 기사는 '거북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전라좌수사를 맡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새

역사상 7대 명품 군함 '명품 군함' 거북선' 중 하나로 꼽았다. 군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 일반 독자 등 2만 6000여 명이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거북선은 19~20세기 미국·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6세기에 활약한 전선(戰船)이 21세기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이채롭다. 그만큼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먼저 크고 작은 총통(銃筒)들을 쏘아 대어 왜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니, 나머지 왜적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는 문구에서 거북선의 전투 운용 방식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반면 거북선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도 2층인지, 3층인지 논쟁이 계속

될 정도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읽다 보면 답답하다. 일본 침략이 임박했음에도 조선은 당쟁 등으로 인해 전쟁 준비를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충무공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의병들의 활약상에서 한 줄기 청량감을 얻는다.

미국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가 거북선을 '세계 해군

기고



정연섭 광주시 광산구 정책지원관

개통 1년 호남고속철, 역발상이 필요하다

용산행 호남고속철 탑승객에게 광주승정역 접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1%가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해 역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주변 교통 혼잡(10.5%)과 주차공간 부족(18.6%)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동 수단은 승용차(41.6%)와 택시(26.4%)가 주를 이룬다. 열악한 대중교통망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40분에서 최대 1시간 가량 허비하고 요금도 만만찮아서 시민들이 지분하고 치르는 비용도 불균형이 크다. 시속 300km로 단축한 시간이 무색하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개통 1년, 광주승정역을 이용한 승객은 470만 명을 넘어섰다. 연인원 282%가 증가한 것으로 폭발적 성장세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탑승객의 급상승 추세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현재 탑승객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에서 호남고속철로 갈아탄 것이기 때문이다. 구는 탑승객이 '호남고속철 개통 이전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약 45%는 이전부터 부른 개통한 호남고속철을 이

용한 승객이었고, 55%가 고속버스나 비행기 등에서 옮겨 온 사람들이었다. 마찬가지로 피자에 고루 흩어진 토핑이 한 쪽으로 쏠린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다른 피자가 필요한 배고픈 사람에게는 별 소용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 유입에 나서야 한다. 광명역은 개통 이래 하루 이용 승객이 50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케이'라는 대형 가구점이 들어서자 하루에만 2만 명이 몰려들었다. 흔히 말하는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지역은 '빵' 하나로, 또 어떤 지역은 '작은 마을'로 번성한다. 킬러콘텐츠는 사람과 물산을 불러 모으고, 이것은 경제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거창한 개발 계획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자발적으로 오게 만드는 킬러콘텐츠 발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을 앞두고 의료와 쇼핑 분야의 빨대효과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탑승객을 조사한 결과 쇼핑 경험은 33.3%이고, 의료기관은 28.7%였다. 하지만 애초 걱정만 큰 빨대효과는 아니다. 한 세미나에서 전남대병원 의대 교수는 "지나해 외래환자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입원환자도 0.4% 감소하는 등 작년 여름 메르스

사태를 고려하면 KTX 개통으로 인한 서울로의 환자유출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가 될수록 전남지역은 따뜻한 기온과 공기 좋고 좋은 음식이 있어 유리한 환경이고, 국립의료시설이나 고령친화 복합단지 등을 통해 거꾸로 내려오는 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 가서 점심 먹고 올까?"라는 농담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속칭 '당일치기'에 주목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거주 탑승객의 경우에는 개통 전 23.2%이던 당일 여행이 개통 후에는 무려 42.5%로 크게 늘었다. '당일치기'라는 말은 생활권과 같은 말로 치환해서 보아야 한다. 서울-광주의 생활권이 하루에서 반나절로 변하고 있다. 광주만 점심 먹으러 갈까 아니고, 그들이 광주로 밥 한 끼 먹으러 오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 1년, 걱정거리는 애초의 빨대효과에서 이제는 기반 시설과 콘텐츠 부재가 됐다. 예전엔 문체부에서 빼어난 후회로 다가온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광주 공동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서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 광주도 빨대 한 번 맛있게 꽂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지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자협회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